

| 풍경으로의 여행 |

# 1800년을 이어온 제주의 속살을 거닐다

## 제주 수월봉

글·사진 정철훈 여행작가

서울예전 사진과를 졸업했다.

사진이 좋아 여행을 시작했고 여행이 좋아 여행작가로 살아간다.

- 2017~2018년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위원
- 2013~2014년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역사기록팀(오아시스로, 해양로 탐험)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2005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수월봉은 성산일출봉의 정반대쪽인 고산리 해안에 봉긋 솟았다. 높이는 해발 77m. 완만한 포장길을 따라 20분만 걸으면 정상이 밟히는 야트막한 오름이다. 하지만 수월봉 정상에서 마주한 풍광은 들인 발품이 민망할 정도로 멋지다.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그 바다에 다소곳이 몸 담근 차귀도, 영알길 따라 병풍처럼 펼쳐진 해안절벽이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해안절벽 너머 위풍당당하게 솟은 오름은 당산봉이다. 수월봉 지질탐방은 제주 최고의 일몰 명소인 수월봉 정상에서 차귀도 선착장을 잇는 수월봉 영알길을 따라간다. 영알은 '높은 절벽아래 바닷가'를 뜻하는 제주 방언이다.



수월봉에서 바라본 영알길



수월봉 정상에서 본 풍경



차귀도

## 18000년 세월이 만든 화산체의 나이테

수월봉 정상에서 내려와 수월봉탐방안내소를 지나면 길은 해안으로 바짝 다가선다. 길이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낮아 보이던 해안절벽도 조금씩 높이를 키운다. 해안을 따라 넓게 펼쳐진 수월봉 화산재 지층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수월봉은 지질학에서 응회환이라 부르는 낮고 넓게 퍼진 화산체다. 수성화산, 그러니까 지하에서 상승한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물을 만나 발생한 폭발적인 분출에 의해 만들어졌다. 같은 수성화산이지만 화구륜이 높고 경사가 가파른 성산 일출봉은 응회환이 아닌 응회구라 부른다. 제주도의 동서 양 끝에 수성화산을 대표하는 화산체가 각각 자리한 셈인데, 아쉽게도 분화구를 포함한 수월봉의 많은 부분이 침식으로 유실돼 둘의 온전한 모습을 비교해 볼 수는 없다. 현재 남은 수월봉은 폭발 당시 만들어진 화산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수월봉 화산재 지층은 사포로 문질러 도드라진 나이테처럼 또렷하고 선명하다. 얇은 돌판을 촘촘히 쌓아 올린 것 같은 지층에서는 화산탄이 박혀 울퉁불퉁한 지층, 저각도로 기울어진 지층(사층리), 수평



수월봉 화산재



수월봉 화산재



수월봉과 영알길



성산일출봉

으로 발달한 지층(수평층리), 층리가 발달하지 않은 지층(괴상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층이 관찰된다. 화산분출물이 사막폭풍처럼 지표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가며 쌓이는 화쇄난류의 결과다. 화산탄에 의해 지층이 휘어진 탄낭구조는 당시 폭발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보여준다.

### 해안절벽에 남은 역사의 아픔

아름다운 수월봉 해안절벽은 우리네 아픈 역사도 품었다. 멋진 화산재 지층을 사이에 두고 영성하게 들어앉은 두 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주인공이다. 갱도진지. 제주도에는 일제강점 말기에 일본군이 조성한 군사시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수월봉 화산재 지층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갱도진지도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본군은 1944년 미군이 필리핀을 점령하면서 제주도의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 했다. ‘결





수월봉 화산재 지층



갱도진지

(決)7호 작전이다. 일본 본토 부대와 만주 관동군 등 7만여 병력이 제주도에 집결했고, 제주도 내 370여 개 오름 가운데 120여 곳이 이때 군사기지화 됐다. 수월봉 갯도진지도 그때 생긴 깊은 상처다. 수월봉 화산재 지층을 거칠게 파고든 수월봉 갯도진지는 미군이 고산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갯도에서 바다로 직접 발진해 전함을 공격하는 일본군 자살특공용 보트와 탄약을 보관했던 장소다. 나무합판으로 제작한 일본해군의 해상특공정인 진양(震洋)에는 250kg의 폭약을 탑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흉물스러운 갯도진지 앞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을 위로하는 건, 그래도 수월봉 해안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해안에 닿아 흩어지는 하얀 포말에 답답한 마음을 실어 보내고 다시 걸음을 옮긴다. 옥빛을 머금은 바다에서 밀려든 거친 파도는 설 새 없이 검은 해변을 훑고 지난다. 수월봉 영알길을 걷다 잠깐씩 걸음을 멈추게 되는 건 이때다. 해안으로 밀려든 파도가 검은 바위에 닿아 하얗게 부서지는 그 순간, 모래 고운 백사장에서 찰랑대는 그것과는 힘부터 다른 파도와 그 파

수월봉 해안의 용암(현무암)







용암에서는 절리가 관찰된다.



녹고의 눈물





녹고의 눈물



산뜻하게 포장된 영알길



해녀의 집~영알과 화산재 지층 구간





해녀의 집~영알과 화산재 지층 구간



거북바위 전망대에서 본 풍경

도를 온몸으로 감당해 내는 검은 바위의 당당함이 여행자의 걸음은 절로 멋지게 한다. 이 검은 바위의 정체는 용암(현무암)이다. 화산체가 집이라면 용암은 기초다. 수월봉 해안에 넓게 분포한 검은 바위는 18000년 동안 수월봉을 받혀준 든든한 버팀목인 셈이다. 용암 표면에서 관찰되는 육각형의 균열은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절리다. 절리가 단면을 이뤄 기둥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주상절리라 한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주상절리로는 수월봉에서 멀지 않은 중문 대포해안의 주상절리대를 꼽을 만하다.

## 화산체가 흘린 눈물

효심 가득한 남매의 애뜻한 전설이 깃든 녹고의 눈물은 갯도진지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 있다. 오래 전,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구하러 다니던 수월과 녹고라는 남매가 있었다. 모진 고생 끝에 남매는 99가지 약초를 얻었다. 하지만 마지막 약초인 오가피를 구하기 위해 절벽을 오르던 수월이 떨어져 죽고 말았다. 수월의 죽음을 슬퍼한 녹고는 누이가 떨어진 언덕 위에서 몇날며칠을 목 놓아 울었다. 녹고의 모습을 본 마을사람들은 남매의 효심을 기려 이곳 언덕을 '녹고물 오름' 또는 '수월봉'으로 불렀다.

녹고의 눈물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맑은 물이 흘러내린다. 양도 제법 많다. 고산리 주민들에게 귀한 식수가 되어준 녹고의 눈물은 사실 물이 잘 스미는 화산재 지층의 특성 때문에 생겼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화산재 지층으로 스미고, 지층을 통과한 물이 진흙으로 된 고산



거북바위 전망대에서 본 풍경





층(불투수성 지층)에 고여 밖으로 흘러나온 것. 앞 문장의 ‘빗물’과 ‘물’을 ‘녹고의 눈물’로 바꿔도 좋을 듯하다. 녹고의 눈물을 지나면 어느덧 영알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수월봉 영알길은 고산기상대나 차귀도 선착장 어느 방향에서 출발해도 걷는 거리와 난도는 비슷하다.

수월봉 지질탐방로인 영알길은 편의상 두 코스로 나눌 수 있다. 고산기상대가 있는 수월봉 정상에서 차귀도 선착장을 잇는 구간이 1코스라면, 수월봉 너머 영알과 화산재 지층에서 해녀의 집을 잇는 구간은 2코스가 된다. 수월봉 정상과 영알과 화산재 지층이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알과 화산재 지층, 검은모래해변, 해녀의 집 등을 함께 돌아보기 위해서는 고산기상대에서 올레길 12코스를 따라 도로까지 내려선 뒤 노을해안로를 이용해 해녀의 집까지 가서 탐방을 이어가야 한다. 고산기상대에서 해녀의 집까지는 1km 남짓. 해녀의 집에서 영알과 화산재 지층을 잇는 구간은 별도의 탐방로 없이 해안을 따라가는 코스여서 학술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개별 탐방은 자제하는 게 좋다. 해녀의 집에서 영알과 화산재 지층까지 다녀오는 거리는 왕복 2.4km 정도다.

당산봉 둘레길은 영알길과 연결해 걷기에 좋다. 차귀도 선착장에서 출발해 거북바위와 생이기정, 당산봉수를 거쳐 다시 차귀도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거리는 대략 4.5km 남짓.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초입 경사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능선과 평지로 이뤄져 크게 힘들지 않다.

올레길 12코스 가운데 최고의 비경으로 꼽히는 생이기정이 포함돼 걷는 재미만큼 눈맛도 일품이다. 전체구간이 부담스럽다면, 거북바위까지만 올라도 좋다. 아니 거북바위까지는 꼭 올라보길 권한다. 전망대가 마련된 거북바위 전망대에 서면 수월봉에서 차귀도 선착장까지 방금 지나온 길이, 18000년 전 만들어진 화산체의 속살을 비집고 지나온 길이 눈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물론 침식을 깎여나간 절벽 아래 길이 보이는 건 아니다. 분명 걸었지만 보이지 않는 길, 하지만 분명 존재하는 길. 어쩌면 그래서 시원스런 풍경을 마주한 그 순간에도 그림다 느꼈는지 모르겠다. 수월봉 영알길은 그런 길이다.

생이기정





## 여행정보

- 관련 웹사이트**      **국가지질공원** [www.koreageoparks.kr](http://www.koreageoparks.kr)  
**제주도지질공원** [www.jeju.go.kr/geopark](http://www.jeju.go.kr/geopark)  
**비짓제주** [www.visitjeju.net/kr](http://www.visitjeju.net/kr)
- 여행 문의**            **수월봉탐방안내소** 064-772-3334  
**제주도지질공원** 064-710-3945  
**제주국제공항 종합안내센터** 064-797-2526
- 자가운전 정보**      제주국제공항 → 공항입구에서 중문,한림,신제주 방면 우회전 → 신제주입구에서 중문,한림 방  
면 우회전 → 신광사거리에서 중문,한림 방면 우회전 → 고산3교차로에서 고산,차귀도 방면 우  
회전 → 고산육거리에서 고산서2길 방면 왼쪽 11시 방향 → 수월봉탐방안내소
- 대중교통 정보**      **[항공] 서울-제주,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항 비행기 탑승. 약 1시간 소요**  
\* 제주국제공항 4정류장에서 급행 102버스(1일 12회 운행) 이용. 고산환승정류장 하차. 도보 약  
3.2km(수월봉)  
\* 제주국제공항 4정류장에서 급행 102번(1일 12회 운행) 탑승 후 고산환승정류장에서 하차. 도  
로 건너편 고산환승정류장에서 지선 771-1, 771-2 탑승. 차귀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100m(차  
귀도 선착장)
- 숙박 정보**            **신라호텔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75 / 064-735-5114 [www.shilla.net/jeju/index.do](http://www.shilla.net/jeju/index.do)  
**롯데호텔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35 / 064-731-1000 [www.lottehotel.com/jeju-hotel/ko.html](http://www.lottehotel.com/jeju-hotel/ko.html)  
**서귀포KAL호텔**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242 / 064-733-2001 [www.kalhotel.co.kr/seogwipo/](http://www.kalhotel.co.kr/seogwipo/)
- 식당 정보**            **가시아방** 고기국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을 섭지코지로 10 / 064-783-0987  
**맛나식당** 갈치조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을 동류암로 41 / 064-782-4771  
**그리운바다성산포** 고등어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등용로 94 / 064-784-2128